

AB1★. 김영랑 「독을 차고」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a) 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마저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 입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1. '벗'은 비록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녔지만 나의 의지를 돕는 친구이다.(o,x)
2. 두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삶의 자세를 부각했다.(o,x)
3. '벗과의 대화'는 시적 화자가 '독'을 차게 되는 상황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o,x)
4. '허나'는 내면의 의식이 무상감에서 결연한 의지로 돌아서는 것을 나타내는 시어이다.(O,X)
5.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보이고 있다.(O,X)

AB2. ★문정희 「겨울 일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문 한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가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② 명사로 시를 마무리 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영탄적인 어조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2.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겨울'은 이별의 시간으로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는 계절적 배경이다.
- ② '염주'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종교에 의지했던 절망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 ③ '편히 지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낀 데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 ④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숲이 되는 상황은 화자와 대조적 상황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⑤ '반추동물'은 이별을 곹씹고 있는 화자의 현 상황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자연을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두 존재가 모두 생명을 낳고 번성시키는 원초적 활동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문정희를 비롯한 여성 시인들은 임과의 사랑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여성의 체험을 자연의 거대한 운행원리에 적용시키면서 여성과 자연의 동일화를 극대화시켰다. 이들의 작품에서 대지는 흔히 모성을 상징한다. 봄을 맞아 대지 위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과 겨울이 되어 죽음으로 잠드는 것은 여성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과도 같다. 이에 따라 여성이 겪는 갈등이나 슬픔은 종종 자연의 황량함이나 파괴로 나타나며, 이러한 자연의 회복 또한 여성성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는군.
- ② '벌거벗은 나무가 숲이 되는 것'은 '임과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군.
- ③ '독백'은 죽음으로 잠드는 화자의 상황과 조응하여 이별 후 화자의 쓸쓸한 내적 정서를 드러내는군.
- ④ '나무'가 벌거벗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의 파괴며 이는 물질주의적 문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겠군.
- ⑤ '겨울'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시점임과 동시에 여성의 생산성이 소멸된 시점이며, 그렇기에 이는 화자에게 '죽음'의 느낌을 반추하게 되는군.

A3.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1. <보기>의 a, b에 해당되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쓰라.

<보기>

아직 멀었다. 내가 가르친 a.기술로 경비가 삼엄한 성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숨겨 둔 보물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영락없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궁지를 벗어나려면 스스로 터득한 b.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멀었다고 하는 것이다.

2. <보기>의 '얼굴'에 해당하는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라.

<보기>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님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3.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O,X)
4.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O,X)
5. 표면화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O,X)

A4. 김소월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관조적 어조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④ 시작과 끝을 반복, 변주하여 주제 강조에 기여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거리가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달래꽃>과 함께 소월의 대표시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기·승·전·결의 완벽한 구성과 평범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시어를 구사하여 서정시로서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제목으로 쓰인 '산유화'는 어떤 꽃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산에 피어 있는 꽃'이라는 뜻으로 '산'과 '꽃'을 함께 제시하는 조어(造語)이며,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대유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이 글의 제재를 통해 작가는 모든 존재들의 숙명적인 개체성 또는 실존적 존재성을 표상한다. 나아가, 첫째 연에서의 '피는' 행위가 넷째 연에 이르러 '지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라는 우주 만상의 존재 원리를 강조한다.

- ① '산, 꽃, 새' 등은 지시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고 볼 수 있겠어.
- ②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는' 것은 1연과 맞물려 생성과 소멸의 우주관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해.
- ③ '산에 피는 꽃'이 '저만치 피어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고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어.
- ④ '새'와 '꽃' 등의 자연을 소재로 쓴 것을 보아 자연의 질서가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출이라 보아야 해.
- ⑤ '새가 우는 것'은 존재가 숙명적으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고독의 표현일 수 있겠군.

A5.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가)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나)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山)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 속에 살아갈지어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行人)아.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人情) 담을지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1. (가), (나)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냉소적 어조로 드러나 있다.(O,X)
2. (가), (나)는 모두 부정적 상황이 시상 전개의 바탕에 깔려 있다.(O,X)
3. (가), (나)는 모두 화자의 지향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O,X)
4. (가)의 '악수'의 의미를 쓰고, <보기>의 시와의 차이점

을 서술하라.

<보기>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幄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
오

AB1 : X, O, X, O, O

AB2: 2, 2, 5

A3 : 몸짓-꽃(눈짓), 빛깔과 향기, O, X, X

A4 : 5, 4

A5 : X, O, O, 악수는 자아 간 화해이며, <보기>의 시는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